

木版印刷物の 歷史 是非
韓國木版印刷物이 世界最高
變相圖 陀羅尼經이 立證



韓國 紙器工社
 代表 金 舜 哲

“중국 고대의 위대한 발명 인쇄술(中國 古代的偉大 發明 印刷術 : 1997년 北京新星出版社 刊)” 중 각판인쇄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연유로 중국은 신라 석가탑에서 나온 목판 인쇄물(712년) 이전에 목판인쇄술이 있었고, 석가탑에서 나온 목판인쇄물 또한 당나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나라의 승려 법장(法藏:643-712)이 쓴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를 보면, 도(道)를 깨침에는 선후가 없고, 종이에 글을 찍을 때도 앞뒤가 동시에 찍혀 선후가 없지만, 이를 읽을 때는 반드시 선후가 있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의 목판에 여러 글자를 새긴 다음, 이것으로 인쇄할 때는 동시에 찍히기 때문에 앞뒤가 없지만, 글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쪽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앞뒤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장스님이 죽기 전 해인 712년 이전에 벌써 목판인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국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목판인쇄물을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것으로는

◎ 1974년 산시성 서안(西安)의 당나라 때 고문에서 출토된 산스크리트(Sanskrit : 범어(梵語) 고대인도에서 사용된 문장어)자로 된 비디아-다니-이아나(Vidya-Dhaani-Yana)다라니주(陀羅尼呪) 한장파

◎ 1906년 신장(新疆)의 투루판(吐魯番)에서 출토된 묘법향연화경(妙法香蓮化經 : Lotus Sutra Saddharma Pundarik Sutra)인데 이것은 루오양(洛陽)에서 690-969년 경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고

◎ 다만 연대가 확실한 것으로는 스타인(Stein)이 돈황(敦煌)에서 발견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AD865)의 목판인쇄물 뿐이다. 이것은 현대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왕개(王价)가 부모를 위하여 삼가 만들어 보급한 것으로 함통(咸通) 9년 4월 15일이라고 경문 끝에 찍혀 있어 확실한 연대가 입증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가탑에서 발굴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Unsoiled and Purified Brightened Dharani Sutra : Aryarsmi Vimalvi Suddha Praha Nama Dharani Sutra)보다 인쇄연도가 늦다. 그런데 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신라의 목판인쇄술이 아니라 당나라 때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판치싱(潘吉星)이라는 중국 과학원 자연과학 연구소 연구원인 그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당나라의 인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을 보면 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두 고승 미탁산(彌陀山)과 법장(法藏)이 측천무후 말년에 번역한 것이므로, 그 연대의 상한은 장안 4년(704년)을 초과하지 않고, 그 하한은 석가탑이 751년에 건조된 것으로 볼 때 751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문의 각인(刻印)을 보면, 무후조(武后朝:689-704) 원년(689)에 측천무후가 새로 만들어낸 18개의 글자 중 4개의 글자(證, 地, 授, 初)가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볼 때 이 경문의 704년 이후의 목판인쇄물로 보아야 한다.

불교는 고구려(高句麗)의 경우, 육로를 통하여 수림왕(獸林王) 2년(372)에 들어왔고, 백제(百濟)에는 船便으로 동진(東晉), 남조(南朝)로부터 침류왕(枕流王) 원년(384)에 들어왔으며, 신라(新羅)에는 417-557년 경에 들어와 진흥왕(眞

興王) 때부터 번영하기 시작하여, 진흥왕 10년(549)초에 양조(梁朝)로부터 불사리(佛舍利)를 맞아들이긴 했지만, 그 후 100여년 간 백제의 불교를 따라가지 못했다. 따라서 선덕(善德)여왕 3년(634)에 분황사(芬皇寺)를 건조할 때와 14년(645) 황룡사 구중탑(九重塔)을 만들 때도 모두 백제의 공예가를 초빙 건조했다.

그러나 당나라 수팅방(蘇定方)이 이끄는 군대와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666)한 후로는 당나라의 공예가들을 초빙하여 불국사 등을 건립했다는 고대 문헌(慶尙道 江左大都護府, 慶州 東嶺 吐含山 大華嚴宗 佛國寺 古今歷代 諸賢 繼創記)이 있음을 볼 때, 당나라 공예가들이 가져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석가탑에 봉납했을 것이다. 석가탑의 다라니경을 제하면, 한반도 최초의 목판인쇄물 출현은 1007년 고려 총지사(總持寺)가 발행한 보협인다라니경(寶篋印陀羅尼經)이 되므로, 751년 이전의 석가탑의 인쇄물이 한국 것이라면, 그 후 300여년간의 인쇄물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치성(潘吉星)의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 다라니경의 종이가 닥나무 종이(楮紙)이고 (사실은 당나라에서도 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새로 만들어낸 글자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당나라와 신라의 유통이 빨랐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삼국사기에도 나타나 있다.

신라는 695년에 측천무후의 역법(歷法) 개혁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효소왕(孝昭王) 4년(695) 子月을 새해 시작으로 하였다가 5년 뒤인 700년(孝昭王 9年)에는 寅月을 새해 시작으로 되돌렸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측천무후가 잠깐동안 고쳤던 역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뜻하며, 새로 만든 글자를 인용할 수 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학계(朴星來 外大 교수)의 반론이었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반론은 어딘가 애매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결정적인 새로운 증빙자료가 성암 고서박물관에서 공개되었다(1998. 6. 13). 이것은 "변상도(變相圖)가 붙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사경(寫經: 筆寫本經典)인데, 일본 소학관(小學館)이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출간한 미술전집에 수록됨으로써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다라니경에는 측천무후(624-705)가 만들어 사용했다는 글자가 6종 15자나 들어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석가탑 목판인쇄 다라니경에는 4종 10자뿐). 측천무후가 죽은 후에는 그가 새로 제정한 16자가 사용되지 않아, 이 글자가 들어있다함은 측천무후 때거나 그에 가까운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변상도 다라니경"에는 석가탑 중의 다라니경에서보다 많은 새로운 글자가 사용되었으므로 석가탑의 목판인쇄 다라니경보다 수년 앞선 것이 확실하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측천무후가 새로 만든 글자들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경주 석가탑 중의 목판인쇄물 "다라니경"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설을 씻어버리게 되었다.

"측천무후"가 새로만든 글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중전의 글자	証	地	授
새로만든 글자	鑿	峯	穉

(註) 여기에서 나오는 측천무후(則天武后: 624-705)는 아주 특수한 여걸이었다. 산시성(山西省) 출생인 그녀는 14세 때 당 태종(唐太宗)의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태종이 죽자 여승으로 입산했다. 그런데도 태종의 아들 고종(高宗)의 눈에 띄어 고종의 후궁으로 들어갔으니, 고종은 아버지의 후궁을 다시 끌어들이는 격이다.

이 후궁은 성격이 고약하여 마침내는 고종의 황후 왕(王)씨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후가 된 다음 병약한 고종을 대신하여 집무를 보았다. 그러다가 고종이 죽으니 중종(中宗)을 등극시키고 자신이 섭정을 하였으니, 이 여걸이 바로 측천무후(則天武后)이다.

이 욕심많은 무(武)씨는 689년에 당나라를 무씨천하(武氏天下)로 바꾸고, 나라 이름을 주(周)로 개명해 버렸다. 그리고서 역법(曆法)과 관명(官名)을 바꾸고 새로운 글자도 제정하였지만, 주(周)나라 15년 만인 704년에 장간지(張柬之) 등이 난을 일으켜 중종(中宗)을 복귀시키고 당나라를 재건하였다.

이 짧은 기간동안 바뀌어진 역법이 이미 신라에서도 사용되었으니, 새로 제정된 글자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있다고 해서 당나라 인쇄물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증거물로서 "변상도가 붙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사경"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